교수 1인당 SCI급 논문 2년 연속 1위 '광주과기원의 힘'은

①돈 억대 연구비 적극 지원
②시간 2년간 강의 부담 없어
③인력 연구원 선발때 우선권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수 1인당 SCI급 논문 발표수가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국내 대학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0일 발표한 '2007년 우리나라 SCI 논문수'에 따르면 광주과기원은 교수 1인당 논문 수가 5.07편으로 포스텍(4.45편), 서울대(3.71편), 카이스트(3.31편), 성균관대(2.48편) 등 국내 유명대학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대학원생을 포함한 연구자 1인당 논문 수도 0.52편으로 성균관대(0.43편), 울산대(0.41편), 포스텍(0.40편), 서울대(0.39편) 등을 제쳤다.

광주과기원은 2006년 조사에서도 교수 1인당 논문이 5.19편으로 국내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교원수 89명(2008년 9월 현재), 학생수 808명(석사 과정 372명·박사 과정 421명·통합 과정 15명)에 대학원 과정만을 운영 중인 광주과기원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우수 교수 확보

광주과기원의 교수 공채는 출신학교 등 형식보다는 연구능력을 최우선시하는 실질에 집중돼 있다. 우선 전교생 영어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우수 자원들이 많이 지원한다는 사실을 감안, 지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교수 공채시 대부분 대학들은 학위 논문 등의 원본을 요구하지만, 광주과기원은 간단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논문 목록만 내면 된다.

◇SCI급 논문=미국 과학정보연구소(ISI)가 분류한 과학기술논문색인(Science Citation Index)을 뜻하는 것으로 이 목록에 포함된 학술지는 학술적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받는다.

2007년 교수 1인당 SCI급 논문 수

순위	대학명	논문수
1	광주과학기술원	5.07
2	포스텍	4.45
3	서울대학교	3.71
4	카이스트	3.31
5	성균관대학교	2.48
6	고려대학교	2.17
7	한양대학교	1.88
8	연세대학교	1.84
9	경북대학교	1.53
10	인하대학교	1.49
15	전남대학교	1.12
25	조선대학교	0.69

최종적으로 걸러진 2~3배수의 지원자들은 현장에서 1박2일 동안 심층 면담을 하게 된다. 초청에 드는 비용은 학교가 부담한다. 이 중 모두가 채용될 수도, 모두가 탈락할 수도 있다.

광주과기원 유영균 교학처장은 "해외 유명대학을 상대로 한 홍보에도 직접 나서는 등 우수한 교수를 유치하기 위해 학교측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에만 매진

새로 채용된 교수들에게는 연구비 2억6천만원이 우선 지원된다. 정·부교수급 신임교원에게는 4억원, 석좌교수급에는 8억원까지 지원된다. '하고 싶은 연구'를 맘껏 해보라는 뜻이다.

본인이 원할 경우 교수로 채용된 뒤 2년간은 강의 부담도 없다. 여기에 충분한 보조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원 선발에서의 우선권도 제공한다. 연구에 필요한 시간, 공간, 재원, 인력을 학교가 적극 밀어주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광주과기원 내 전공이 5개(정보통신공학과·신소재공학과·기전공학과·환경공학과·생명과학과)로 집약돼 있는 것도 공동연구 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계속되는 선순환

교수와 학생들이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하고 실적을 내다보니, 국가 수준 연구비 수주 실적도 단연 1위다. 지난해 말 교과부가 발표한 '2006년 전국 대학 연구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과기원 교수 1인당 연구비는 4억8천800여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국내 4년제 대학 교수 1인당 평균 연구비는 4천700만원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진흥과 김새봄 사무관은 "이공계만 집중적으로, 학부 과정 없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점 등이 좋은 성과를 낸 이유인 듯하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 시립묘지 '유리상자 무덤' 눈살

수천개 쌓여진 채 방치…묘원도 처리 골머리

광주시 북구 운정동 광주시립묘지가 거대한 '유리상자 무덤'으로 변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묘지를 찾는 성묘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유리와 스티로폼, 조화(弔花)로 만들어진 유리상자(높이 35㎝, 세로 25㎝, 가로 30㎝)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봉분 앞에 놓아둔 것이지만, 버려진 뒤 제대로 수거가 되지 않으면서 수천개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추석을 앞두고 시립묘지를 관리하는 (재)광주무등묘원은 묘지 주변에 '유리상자 반입 금지'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반입 자체를 막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거된 폐 유리상자는 제8묘원 한켠에 그대로 쌓아둔 채 처리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리상자의 경우 다른 폐기물과 달리 수집운반 처리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현행법상(폐기물관리법) 유리와 스티로폼, 조화를 따로 분리한 뒤 수거차량을 이용해 재활용 또는 매립·소각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무등묘원에는 분리 배출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법규를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6월까지만 해도 무등묘원 측은 잘게 파쇄한 유리상자를 스티로폼과 조화에 함께 섞어 종량제봉투에 담아 수거차량에 실어 보냈었다.

하지만 폐 유리상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관련 법령도 강화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수거운반업체인 K공사가 유리와 스티로폼은 재활용 품목으로 매립이 되지 않는다며 수거를 거부해버린 것이다.

무등묘원 관계자는 "처리비용이 1t당 6만~7만원이 든다. 지금 쌓여있는 것과 묘지에 비치된 것을 포함, 유리상자 3만개(한개 당 400g)를 단번에 처리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광주시립묘지에는 현재 3만4천기가 안장돼있다.

광주시 북구청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시립묘지 경관을 해치고 있는 점을 감안, 빠른 시일 내에 폐유리상자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10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광주 시립묘지 제8묘원 주변에 조화와 스티로폼이 담긴 폐 유리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인채 방치돼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노조위원장인 형 미끼 억대 취업 사기

공기업 노조위원장인 친형을 미끼로 억대 취업사기 행각을 벌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구직자들에게 공기업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알선비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오모(50)씨 등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구직자를 모집해 오씨에게 소개해 온 이모(여·38)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지난 2006년 7월14일 오후 7시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M식당에서 박모(57)씨에게 '모 공기업 노조위원장인 형에게 부탁해 아들을 공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알선비 명목으로 3천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7월 말까지 모두 7명으로부터 2억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지난 3월까지 실제로 모 공기업 지사 노조위원장을 지낸 오씨의 형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간첩 원정화 법정서 참회의 눈물

"북서 태어난게 죄…딸과 살게 해 달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직파 간첩 원정화(여·34)에 대한 첫 공판이 10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지난 7월 체포된 이후 원 피고인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원 피고인은 몰려든 취재진과 방청인 앞에서 긴장하는 모습이었으나 재판부의 인정신문이 시작되자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예" 또는 "맞습니다"로 답변했다.

공판시작 10분 전인 오전 10시20분께 흰색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원 피고인은 옅은 녹색 수의를 입고 있었다. 원 피고인은 검은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한편 검찰은 원 피고인이 공판을 하루 앞둔 9일 간첩 혐의에 대해 반성하는 취지로 재판부와 수사검사에게 전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4용지 3장 분량의 전향서에는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죄"라며 "이제 7살배기 딸밖에 남지 않았다.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신다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평생 참회하며 살겠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조선대병원 전산 장애 2시간 이상 진료 차질

조선대학교병원 전산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2시간 이상 진료에 차질을 빚으면서 내원객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10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0분께 병원 내 진료기록 전산 프로그램이 다운돼 오전 10시50분께 복구됐다. 이 사고로 일부 환자가 퇴원수속을 밟지 못하거나, 진료를 받지 못해 길게는 3시간 이상 대기하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서버가 다운된 직후 원내 안내방송을 통해 이 사실을 알렸으며, 중환자실과 응급실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무면허 운전자 잡고보니 사기범

쌍나팔

○…사기혐의로 수배된 40대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던 중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해 무면허 운전 사실까지 적발돼 경찰서행.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이모(49)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40분께 광주시 남구 백운동 K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던 중 추석 전 방범활동을 강화한 경찰에게 불심검문을 당해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됐다는 것.

○… 이씨는 경찰의 검문 중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하고 인적사항을 밝히기 꺼려하자 경찰서로 연행됐으며, 조회한 결과 무면허 운전자인 데다 지난 2003년에는 사기혐의로 수배까지 된 상태.

○…경찰은 이씨에 대해 사기혐의는 물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할 예정.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